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가나안 여인의 믿음!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봄부터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여름 장맛비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니 반갑기도 했는데 중부지방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을 지우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가뭄이나 기록적인 폭우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보시니 좋았던 세상’ 하느님의 뜻에 맞게 가꾸어 가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께 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마태 15,22)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에게 파견되셨다고 하시며 거절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마태 15,26)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마태 15,27)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신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마태 15,28)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강아지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모욕 같은 말을 듣고도 참아냅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딸을 치유해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내고 애원합니다. 결국 어머니의 인내와 믿음이 딸의 치유기적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의 청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느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해주시고 구원해주셨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보편적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이고,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본받도록 합니다. 간절한 믿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갈전 본당 최송근 비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방인 여인은 간절히 청하고 굳게 믿었으며 자신을 온전히 낮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듯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도록 정성되어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480번 ‘믿음으로’

본기도

†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56장 1절, 6절-7절

안 내 : 하느님의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정의와 공정을 따르고 실천하는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라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으로 모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화답송 :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제2독서 : 로마서 11장 13절-15절, 29절-32절

안 내 : 바오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린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묵 상 : 배척받았던 이들, 배척했던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입는 순간이 옵니다. 불순종의 시간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자비를 다시 체험하고 이방인들은 자비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 알렐루야.



알 림

■ 귀농가족 하계연수

- 일시 : 8월 23일(수) 10:30 - 16:3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20,000원(실습비 포함)
- 준비물 : 미사준비

■ 상주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8월 27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계림동 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8월 24일(목)까지

■ 9월 예비신학생모임

- 일시 및 장소 :
9월 10일(주일) 12:00 (송현동본당)
안동·의성·북부·동해지구
- 9월 17일(주일) 12:00 (모전동본당)
상주·문경지구
- 문의 : 사목국으로(858-3114~5)

■ 순교자 현양 성가발표회

- 일시 : 9월 23일(주일) 09:30 ~ 17: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대강당
- 종목 : 1) 성가발표 : 합창 혹은 중창
지정곡(순교자 현양 성가 1곡)
자유곡(기타성가 1곡)
※ '가톨릭성가' 외의 곡도 가능합니다.
- 2) 기타공연 : 악기연주, 춤, 연극, 콩트 등
- 신청 : 8월 24일(목)까지 사목국으로

■ 안동교구 빈첸시오회 하계 연수

- 일시 : 8월 20일(주일) 10:00 - 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수련관
- 회비 : 1인 15,000원
- 준비물 : 미사준비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8월 28일(주일) 20:30
- 장소 : 예천성당
- 강사 : 김영복 데레사 수녀(성바로말수도회)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 과정 안내 :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영적 일기 쓰기. 격주로 모여 강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하기.
- 연수 일정 : 9월 30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9월 30일/ 10월 14일/ 10월 28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9일/
12월 23일/ 12월 30일 - 총 8회
- 장소 : 영해 성당
- 내용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강의와 말씀 심화 프로그램)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주임)
- 대상 : 동해지구 신자
- 회비 : 1인 40,000원
(영적 일기 노트 비용 포함)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신청 : 9월 14일(목)까지 사목국

■ 레지오 마리아에 평의회 간부 및 Pr. 단장 피정

- 일시 : 9월 3일(주일) 10:30 - 15: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각 평의회 4간부 및 Pr. 단장
(해당자 불참시 대리 참석)
- 강사 : 이철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마산교구 가톨릭 교육관 신부)
- 제목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미사성제 안에서의 주님의 현존과 활동)
- 회비 : 1인당 10,000원
- 준비물 : '매일미사' 책자, 목주, 활동 수첩,
미사 준비
- * 피정 후 주교님 집전 미사 있습니다.

■ 안동교구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썬미숫가루(600g, 1만원, 1kg 1만6천원)
낙동강 청정지역에서 직접 채취한 썬
담당자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영양 토마스 고춧가루(주문판매)
전국 제일 고춧가루 영양 고추 100% 엄선 가공
담당자 : 오 수산나 010-3813-4405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5장

사랑의 결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173.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성이 공부하고 일하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바람직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특히 태어나서 처음 몇 달 동안은 어머니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어머니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여성은 새로운 인간 생명의 주체로서, 그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 세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여성의 자질과 함께 이러한 여성성을 지닌 어머니의 현존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저는 획일성을 추구하지 않거나 모성을 부인하지 않는 페미니즘을 존중합니다. 여성의 위대함은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뿐만 아니라 사회에 필수적인 그들의 여성성에서 비롯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고유한 능력, 특히 모성에도 의무가 주어집니다. 여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특별한 사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는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서 이 사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174. 사실, “어머니들은 만연한 이기적 개인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 어머니들이 바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증언합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어머니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비인간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든 때에도 어머니는 언제나 온유함과 헌신과 도덕적 힘을 증언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처음으로 보고 배우는 기도와 신심의 행위를 통하여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의미도 종종 전해 줍니다. …… 어머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신자들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신앙 자체도 꾸밈없는 깊은 온기를 대부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역할과 교회와 세상에 기여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75. 온유함과 연민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상이 그를 환대해 주는 좋은 곳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아이들의 친밀함과 공감 능력을 촉진하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이가 현실의 한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나아갈 방향의 제시, 더 넓고 도전이 넘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노력과 헌신의 권유라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하고 적절한 남성적 정체성을 지니며, 아내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이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만큼이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각각의 가정마다 특별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역할과 책임에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성과 남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존재할 때, 아이가 성장하는 데에 최적의 환경이 마련됩니다.

176. 우리의 사회가 ‘아버지 없는 사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서양 문화에서 상징적인 아버지상이 사라져 버리거나 왜곡되고, 또한 그 빛이 바랬습니다. 남성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혼돈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는 해방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곧, “주인으로서의 아버지로부터, 외적으로 부여되는 법을 대표하는 아버지로부터, 자녀의 행복을 감시하며 젊은이들의 자립과 자율성을 방해하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일부 가정에서는 권위주의가 지배하였고 심지어 때로는 억압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히 그렇듯이, 하나의 극단은 또 다른 극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아버지가 위압적인 존재라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 곧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들은 자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 그리고 때때로 자신의 성취에 사로잡혀 가정에 소홀합니다. 아버지들은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그만큼 아버지의 권위는 또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오락 매체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종종 권위가 의문시되고 어른들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가 확신이 없으니 자녀들에게도 확실하고 믿을 만한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아이들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그들이 성숙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길로 이끄는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177. 하느님께서서는 가정에 아버지를 주시어 그가 남성성의 소중한 특징들로 “아내와 가까이에서 모든 것, 곧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 곁에서 그들의 성장에 함께합니다. 곧, 아이가 놀 때나 노력할 때, 편할 때나 괴로울 때, 자기 이야기를 할 때나 말이 없을 때, 용기를 내거나 두려워할 때, 방향하거나 바른 길로 되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늘 현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현존’이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통제하는 아버지는 아이를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쓸모가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아이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되어서 때가 채 이르기 전에 어린 아이로 살아가는 것을 단념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다음에 계속 -



바르셀로나의 그녀(2)

김동남 로사
(안동가톨릭문인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으로 인해 복잡하고 떠들썩했지만 나는 그녀의 해설 하나라도 놓칠세라 폰의 녹음 기능까지 활성화시켜놓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내가 미리 알아본 정보라면 이 성당에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영광의 문은 아직 미완성이고 당연히 탄생의 문을 지나 성당 내부를 관람하고 고난의 문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해진 순서이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다른 가이드와는 달리 우리를 고난의 문 쪽으로 먼저 안내한 것이다. 고난의 문 정중앙 높은 곳에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제껏 우리가 보아온 예수님과와는 다른 모습 이시다. 성경에 쓰인 그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가우디의 건축 이념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신성모독이라는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조각된 예수님상!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분이 거기 계셨고 어머니 마리아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과 슬픔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 가슴에 전율이 일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듯 그녀는,

“이제 이문을 지나 성당 내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고난의 문과는 달리 성당 내부의 모습은 천국이 지상에 재현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찬란하여 어찌면 여러분은 비명을 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역시 영리하였다. 고난의 문에서 주님의 수난을 처음에서 끝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들은 가슴이 먹먹하여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데 다음 코스는 그 보상이 되고도 남는다 하니 우리는 서둘러 그녀의 뒤를 따랐다. 나는 성전 안으로 발을 들여 놓기 전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건강하게 오늘날까지 살아 이곳까지 나를 오게 해 주신 그분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몇 발자국 떼지도 않았는데 사방에서 쏟아지는 빛의 소나기에 어리둥절하여 천정을 쳐다보았다. 순간 모든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고 카메라를 꺼내 천정을 향했다. 성당 내부를 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들은 나무를 형상화하여 수많은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치고 있었고 천정의 아름다운 조각들은 스테인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이 성당이 지금까지 건축된 과정을 3D로 보여주면서 모든 구조물 하나하나가 자연을 너무나 사랑한 가우디가 그 자연에서 따온 모티브로 건축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가우디의 성당은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위엄과 웅장함을 느끼게 하는 성전이 아니라 신의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하고 맘껏 안식을 구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성당의 지붕이 기존의 성당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이들 장난감처럼 알록달록하게 온갖 과일을 형상화하여 얹어 놓았고 옥수수 모양의 탑은 기괴하기까지 하였는데 자연과 사람을 강조한 가우디의 정서를 이해하고 나니 그제야 고개가 끄덕여졌다.

성당 투어를 끝으로 그녀와 헤어질 시간이다. 150년이나 된 고택에서 스페인 할머니와 단 둘이 산다는 그녀, 30세에 스페인으로 날아와 이 나라에 매료되어 가이드로 정착하여 40대 중반이 되도록 미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 처음의 비호감과는 달리 그녀가 멋있게 보였고 그녀의 삶이 잠시 부러워지기도 했고 다시 스페인을 찾아올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녀를 찾아 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기도 했다.